

왕조문화

784년에 간무(桓武)천황은, 야마시로국(山背国, 후에 山城国)의 나가오카쿄(長岡京)에 천도 후, 다시 794년에 헤이안쿄(平安京, 지금의 교토시)에 천도합니다. 그것은, 사원세력이 강한데다가, 계속되는 경쟁(政争)의 무대가 되었던 헤이조쿄를 떠나, 인심을 새로이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헤이안쿄 천도 이후, 가마쿠라(鎌倉) 막부 성립까지 약 400년간을 헤이안시대라고 합니다.

문화의 국풍화(國風化)의 기반이 된 것은 가나(仮名)문자의 발생이었습니다. 9세기에 만엽가나(万葉仮名)의 초서체를 바탕으로 한 히라가나(平仮名), 가타카나(片仮名)가 표음문자로써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감성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게 되어, 국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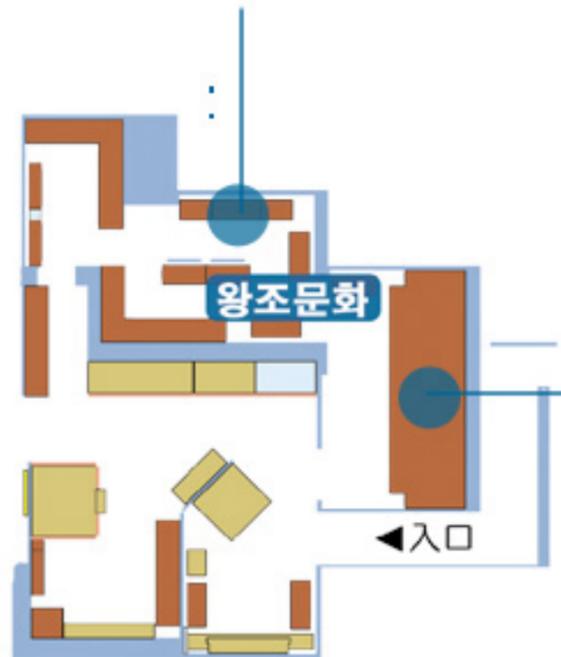


이것들은 무슨 가타카나 일까요?
변천표를 보고 알아 맞춰 보아요~



이것은 나리시대의 다카마츠무덤 벽화입니다. 헤이안 시대의 복장과 비교해 보아요~

나리시대에는, 대륙의 영향이 강했지만, 헤이안 시대가 되자, 중국문화를 배제하고, 일본의 풍토와 일본인의 감성으로 돌아가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세련된 귀족문화가 번성하게 됩니다.



쇼군 이전의 일본

-고분시대부터 헤이안 중기까지-

일본이란 지역에서 처음 권력이 생겨나서 사무라이, 무사가 권력을 잡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 아요이
- 삼국시대
- 고분시대
- 아스카
- 통일신라
- 나라
- 헤이안
- 고려
- 가마쿠라
- 무로마치
- 조선
- 전국시대
- 에도
- 메이지
- 다이쇼
- 쇼와
- 일본강점기
- 대한민국



율령시대

701년, 당의 율령을 모범으로 하여, 일본사회의 실정에 맞춰 수정이 이루어진 다이호(大造) 율령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법전에 의거한 국가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라(奈良)에 710년 헤이조쿄(平城京)가 만들어지고 나서 70년간을 나라시대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기와 제작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스승천황(崇峻天皇) 원년에 나라현 아스카데라의 조영(造營)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일본서기에는, 이 해 백제에서 4명의 기와 제작 기술자가 도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짚을 세우는 것과 함께 기와 제작 기술이 전해진 탓에, 기와는 짚의 불당이나 불탑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기와의 문양도 당분간은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무늬도 계속됩니다.



사신의 기와는 백제의 기와입니다. 기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죄나 불결함을 사람대신에 인형에 실어 강에 흘려보내거나 하는 용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형태는 처진어깨, 각진어깨, 손을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변화합니다. 금속제 인형은 궁 주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눈이나 가슴에 못이 박혀있는 인형은 저주의 인형일까요?

불교와 함께 일본에 전해진 화장(火葬)은, 원래 사체유기 또는 풍장이나 토장이었던 일본 장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로 승려에 의해 채용된 장법이지만, 「만엽집」에서 화장을 노래한 것이 보여지는 것에서, 승려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시대에는 귀족·승려의 화장이 보급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삼국시대에 불교가 중국에서 전래된 뒤부터 다비(荼毘)라 하여 승려가 죽으면 화장하는 풍습이 있었으나 일반인들은 거의 토장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방후원분의 시대

야오이(弥生) 후기부터 유력한 수장의 무덤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커다란 분묘(墳墓)가 만들어 지게 되어, 3세기 후반이 되자, 야마토(大和, 현재의 나라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는 강력한 나라가 생겨나, 전방후원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무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조선과의 정치적·군사적 교류가 진전되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온 도래인들은, 동아시아 세계의 공용문자인 한자를 구사하여, 왜(倭)국의 행정기구를 만들 때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삼국시대의 거울 모형에서 주의의 한자 명문(銘文)이 있습니다



고분시대가 되면, 일반 집락과는 별개로, 호로 둘러싸인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 터가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족의 저택으로 보여집니다.

저택의 보형을 보고 청동거울속의 저택을 찾아보아요~



전방부는, 야오이 분약묘의 돌출부가 변화한 것으로, 원래 죽은 자를 모시는 제단으로써 발생·발달했다는 설과 장례 행렬이 후원에 이르는 묘도(墓道)였다는 설이 있어, 점차 독특한 형태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전방부에도 매장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했던 곳일까요?

